

“자기반성 없는 이재명 대표체제… 전면적 개혁·쇄신 필수”

인터뷰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60·경기 화성읍·3선)의 말은 날카롭다. 특히, 시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때 그의 말은 날이 선다. “미래도, 유능함도, 혁신도, 통합도 없는 민주당이 되었다”, 이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되돌아보며 내린 평가다.



이원욱 의원은 오랜 당직자 생활을 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초들의 뜻을 모아 창당된 열린우리당에서 40개월 동안 당 대표가 11번 바뀌는 것을 지켜봤다. 당의 지도력이 채 100일을 넘기지 못한 채 바뀐 것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 진영의 대패를 바라보면서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실패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그는 저서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나무와숲·2011)’에서 일갈한다.

다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김남국 의원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 등 국민이 등을 돌릴 만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민심의 흐름을 민주당이 잡기 위해선 당의 전면적인 개혁과 쇄신이 필수적이라는 이 의원을

지난 11일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보다 내가 먼저여서는 안 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전국정당화’ 위해 신뢰회복 강조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혁신 없이 변화하는 모습 통해 국민 설득해야”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굉장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언론이나 여론의 동향을 보면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 검찰의 무차별적 공세도 문제지만, 민주당 스스로도 근본적으로 혁신하면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취임 후 극심한 계파갈등 속에서도 22대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한 마음은 같다고 했다. 다만, 총선 승리에 대한 염원은 같지만,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 만한 자기반성과 혁신은 거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대선에서 졌다. 그럼에도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다. 그리고 나서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인천으로 출마했다. 아주 황당한 모습이 벌어졌다”면서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를 또 졌다. ‘참패’라고 할 만큼 졌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평가와 반성이 없다. 그 후 당 대표 선거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모습들이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당후사보다는 ‘내가 더 먼저’라는 표현 아니겠나”라며 “제가 경험한 당 대표와 지도자들은 항상 선당후사를 외쳤지, 선당후사보다 ‘내가 먼저’라고 이야기했던 당 대표는 보지 못했다. 그것이 현재 지도부와 기존 지도부의 아주 결정적 차이”라고 부연했다.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과 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정치는 길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진영 간의 싸움을 심화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국무위원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 봤다. 최소한, 총리가 의원의 질의를 중간에 끊고 말하는 일은 없었다”며 “국회 전체를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공간이 아니고 싸움의 공간으로 바라봐 무한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

단적인 장면을 보여준 것이 이번 대정부질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총선에서 25%씩 양당 지지자로 고착이 돼 있다. 총선의 투표율을 보통 60%라고 할 때, 10~15%가 스윙보터(부동층)들이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스윙보터들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며 “양당이 극단적으로 정치투쟁하는 모습에 대해 신물을 느끼는 국민이 굉장히 많아졌다.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한 지지자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반대 당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선 마지막 단계에 누구를 찍을지 설득하지 못하면 선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참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선 정치공학적 시도보다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TK(대구·경북)이나 호남이 어느 순간 변화했다. 상상하기 어렵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 싸웠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등 정치권에서 실패가 나와 다시 실망해서 민주당을 심판했다”며 “신뢰의 정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제일 근간에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해서 사랑받는 정당인 된다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그것보다 더 혁신하고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바른 소리 할 것”

마지막으로 이 의원에게 “원래 불의를 잘 못 참는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은 용기가 없으면 못 한다. 불의를 못 참는다기보다는 그런 용기는 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며 “학생 운동 이후에도 당직자 생활을 할 때,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공개적이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바른 소리를 말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트로경제신문’과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는 모습. /손진영 기자 son@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